

# 세계유산 추진에 밀바탕 '발견'

부안 유천리 청자 요지서 전체 형태 고려 청자가마 최초 확인... 학술자문회의·현장설명회 가져

부안군 유천리 청자 요지에서 전체 형태의 고려 청자가마가 최초로 확인됐다. 부안군은 발굴조사 중인 부안 유천리(사적 제 88호) 6구역 가마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와 현장 설명회를 17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발굴현장에서 2차례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적지인 유천리 6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가마와 유물퇴적구의 축조방법과 운영시기, 성격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청(청장 정재호)의 허가를 받아 지난 2월부터 (재)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조사된 유천리 6구역의 가마는 모두 2기인데 구릉 서사면에 등고선과 직교한 방향으로 나란히 축조됐으며 1·2호 가마는 약 5m 간격으로 비교적 가깝게 위치해 있다.

가마는 진흙과 석재를 이용해 만든 토축요(土築窯)이며 가마 바닥면에는 원통형 갑발과 도지가 불규칙하게 놓여 있다.

가마 2기 중 전체적인 구조가 양호하게 남아있는 1호는 전체길이 25m, 연소실 길이 1.6m, 소성실 길이 1.8m이다.

가마 맨부분에서는 석재로 만든 배연시설이 확인되며 배연시설과 맞닿아 있는 마지막 소성실 바닥면에는 여러 점의 초벌 청자가 놓여있다.

1호 가마의 우측(남쪽)에서는 유물퇴적구가 확인되는데 소성실 끝 칸 우측의 유물퇴적구에서는 특히 초벌 청자편이 집중적으로 쌓여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가마온도가 가장 낮은 소성실 끝 칸을 초벌 전용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고려시대 청자가마에서는 강진 사당리 4호에서 초벌칸이 확인됐으



부안군이 발굴조사 중인 부안 유천리 6구역 가마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와 현장설명회를 17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발굴현장에서 2차례 개최했다.

나 초벌칸과 연결된 유물퇴적구에서 초벌 청자가 대량으로 조사된 예는 최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와 비교할 수 있는 예로는 조선시대 15세기 경 분청사기 가마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가마구조의 발전단계 연구에 있어 6구역 1호 가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맞은 편 구릉에 위치한 유천리 7구역에서 출토된 청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접시·잔·발·완 등의

일상기명이 대부분이며 무문·압출양각·철백화 기법의 청자가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가마의 운영시기가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 경일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조사에서 전체형태의 청자가마가 최초 확인된 것이 주요 성과"라며 "이는 학술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아 향후 사적지 복원 및 정비사업, 나아가 세계유산 추진에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김인숙작가 - 개미마을.

## 김인숙 개인전, 내일부터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열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19일부터 24일까지 '김인숙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10번째 개인전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그룹전과 다양한 기획·초대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특선, 한독미술공모전 입선, 목우회 특선, 안견미술대전 입선 등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전남미술대전, 충남미술대전, 강서구청 환경공모전, 경제사생대회 심사위원과 한국미술협회 한국화 분과위원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회원, 강서미술협회 한국화 분과위원장, 구상회원, 산채수묵회원, 영란회원, 강미사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진지하고 투명한 삶 속에서 따뜻하게 피어나는 행복한 교감의 산물이다.

화폭 속에 담아내고 있는 실경산수의 담담한 풍경들은 자신의 주어진 삶에 대한 성찰과 자연 풍경과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만남과 소통에 대한 소박하면서도 절실한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 장수군, '클래식 열린음악회' 성료

장수군이 양질의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클래식 열린음악회'를 열었다.

17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역의 예술단체와의 협연을 통한 군민들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 14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군이 주최하고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클래식 열린음악회'를 공연했다.

이번 공연은 3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120년 전통의 체르니우치 주립 교향악단인 체르니우치 팔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테너 김산기, 소프라노 에카테리나 킴의 협연 등이 펼쳐졌다.

또 장수군 관내 음악 동호회인 장수리조이스콥이어와 장계 반올림색소폰동호회, 번암 색소폰 동호회 등이 협연을 통해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장영수 군수는 "클래식공연임에도 많은 군



14일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클래식 열린음악회'를 공연했다.

민들이 환호와 함께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공연이었고 지역 음악 동호인들이 수준 높은 교향악단과 협연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렘했다"며 "지속적으로 기획공연을 통해 군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 고민과 열정으로 탄생한 공연이 온다

소리문화예술회관서 28일 익산시립예술단 정기공연 개최

익산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이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소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시립무용단(예술감독 박종필)과 시립풍물단(예술감독 김익주)이 합동으로 공연을 진행하며 특히 단원들이 무대구성사 안무, 음악 등을 직접 준비해 의미가 깊은 공연이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익산시립예술단은 매년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도 단원들이 중심이 된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구성됐다.

총 연출을 맡은 박종필·김익주 예술감독은 단원들의 작품에 대한 고민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기공연에 많은 익산시민들이 방문해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립무용단·시립풍물단 합동 정기공연

NEXT MOTION

단원창작전

출연을 해오다 | 익동일 김익주 | 박종필 | 박종필 | 박종필 | 박종필

2019/6/28/금요일/오후 7:30

소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

주최 : 익산시 주관 : 익산시립무용단, 익산시립풍물단  
공연장 : 익산시립예술단 (063-850-3306, 익산시립무용단 041-0228, 익산시립풍물단 063-2947)  
공연료 : 10,000원 (익산시립예술단, 소리문화예술회관) 후원 : 익산시, 익산시립예술단, 소리문화예술회관, 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